

# “1000년 전 고려의 무능한 통치자 민낯 파헤쳐”

전라도 정도 천년 관련 장편 ‘은행나무 숲’ 펴낸 장현필 작가

“통치자가 탐욕스러우면 백성이 굶고 무능하면 전쟁이 난다.”

동서고금을 통해 변하지 않는 진리 중의 하나다.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의 역사가 이를 방증한다.

올해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이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00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 역사소설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1018년 고려 현종 무렵을 전후로 한 작품은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작품이다.

소설을 쓴 이는 순천 출신 장현필 작가. 그는 오랫동안 영화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해왔다. 이번엔 펴낸 ‘은행나무 숲’(풀잎)은 무능한 권력자와 부패한 관리들의 민낯을 날카롭게 보여준다. 이번 소설은 그의 두 번째 작품으로 지난 2016년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왜교성을 품은 달빛청춘’을 펴낸 바 있다.

장 작가를 만난 것은 총장축제가 열리고 있는 예술의 거리에서였다. 들뜬 축제 분위기 탓에 덩달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가을날이었다. 출간한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소설을 들고 나온 그는 첫눈에도 예상대로 모습이 아니었다. 예술가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이미지에서 선세함과 티끌 함이라는 이질적인 이미지가 묻어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21세기는 밀레니엄을 맞고 또 여기에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았다는 것은 행운이라고 생

개성 만월대 배경 암투 그려  
나주 ‘아망바우설화’ 등 녹여내  
젊은이들에 ‘전라도’ 가치 전달  
당분간 애니메이션 작품 집중

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구요. 새로운 천년을 살아야 할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땅 ‘전라도’의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발간 배경을 묻는 말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그리고 보니 21세기는 밀레니엄과 정도 1000년이라는 사실 자체가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장 작가는 “지도자의 가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며 “특히 지도자가 백성을 대하는 태도, 나아가 백성을 버린 군주에게 보여지는 세상의 시야가 어떠한지 말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작품은 지난 2017년 봄에 시작해 꼬박 1년 6개월이 걸렸다. 소설을 쓰기 위해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나타난 역사적 팩트에 상상력을 가미했다. 보다 세밀한 고증을 위해 관련 논문만 30여 편을 참조했



다. 특히 남도 백성들의 문화가 담겨 있는 설화 가운데 나주의 ‘아망바우설화’, 광양 ‘삼정설화’, 지리산 ‘마고설화’ 등을 작품 속에 녹여냈다.

“은행나무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가는 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주목과 느티나무도 그렇구요. 작품 제목을 ‘은행나무 숲’이라고 정한 것은 전라도의 힘, 백성의 힘을 상징화했다고 볼 수 있죠.”

소설의 줄거리는 개성 만월대를 배경으로 한다. 고려 7대 목종은 나약한 데다 제대로 정사를 돌보지 않는다. 그의 모친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는데, 그녀는 외간 남자인 김치양과 사랑에 빠져 아들을 둔다. 천추태후는 이 아들을 왕위에 올림하려 하

지만 당시 유일한 고려 왕씨 혈족인 대량 원군(훗날 현종)이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른다. 1009년 서경의 강조 장군 정변으로 천추태후 정권이 몰락한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 거란의 침입으로 현종은 백성을 버리고 나주까지 몽진을 오게 된다. 무능하고 나약한 현종은 이 과정에서 전주와 나주, 담양 고을의 백성들로부터 지혜를 얻어 큰 깨달음을 얻는다. 이후 거란의 3차 침입 때는 맞서 싸워 이기게 되고 고을을 재건한다.

“재미와 감동을 주기 위해 스토리의 개인성을 판타지 형식으로 풀어냈다”는 말에서 다큐와 영화 감독을 했다는 이력이 짐작된다. “이전에 영화와 다큐를 만들면서 깨달은 사실은 무엇보다 글이 예뻐야 작품이 잘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그만큼 원재료가 중요합니다.”

그는 1997년 순천 동부지사역사연구소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역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후 여순사건을 영화로 만들었지만 보수단체와 정보기관의 감시로 상영하지 못했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 그럼에도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것은 “역사를 통해 오늘을 보고, 오늘을 토대로 미래를 대비하자”는 의미 때문이다.

“수년 전에 전쟁의 아픔을 그린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당분간은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드는데 집중할 생각이요. 적잖은 제작비가 들어가지만 모든 역사는 ‘지금, 백성으로’라는 명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죠.”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문화읽기

매년 10월은 축제가 가장 많이 열리는 달이다. 호남 지역도 연중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축제가 펼쳐진다. 문화관광체육부(2017)의 지역별 축제 개최 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시도 단위 축제 수는 733개나 된다. 각 구나 읍면동 단위의 작은 축제는 제외할 수 있다. 전남의 경우는 전국 최고로 102개, 광주는 광역시 중 최대로 8개 축제가 개최된다.



정혜영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그런데 축제를 다녀보면 많은 의견이 “축제는 많은데 축제다운 축제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이는 축제는 많은데 ‘나’에게 적합한 축제를 찾지 못해서 일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공급자 위주의 축제일 뿐 수요자 위주의 축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중학교 딸 아이는 학교 축제를 고대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매년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를 추진하고 있고 올해 3회째를 맞는다.

문화예술교육축제는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시민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체험하고 즐길 권리가 있는 것을 알리며 시민과 단체가 함께 어

## 문화예술교육 축제 ‘아트 날라리’

하고, 고등학교 딸 아이는 학교 축제를 기쁘게 생각하는 것 이미 알아서 기대도 안한다.

“한강 몽땅 축제”의 윤성진 감독은 “축제의 주체가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즐기기를 위해 스스로 장을 마련해야 한다. 성공한 축제는 스스로 진화하는 유기체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한 사람들과 기린 대로 즐겁게 한다. 축제를 그런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과거와 현재에도 축제에서 인간이 얻고자 하는 바는 유사하다. 축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억압 등을 해소하고 소망하는 바를 기원하는 기회와 개인 또는 집단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의식이 강할 것 같은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 공동체 지수가 최하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공동체 개념도 나라는 주체성도 찾기 힘든 대한민국의 현재 삶 속에서 축제는 ‘우리’라는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결국, 좋은 축제는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보았을 때, 좋은 축제는 서로를 위로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고 스스로 만들고 즐기며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자산을 축적해 갈 수 있는

울리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제공하며 문화예술교육이 가야 할 방향성을 찾는 중요한 기회다.

“아트날라리”라는 축제 이름은 문화예술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축제의 부제다. 아트날라리는 “쾌활하고 신나는 축제 분위기를 표현, ‘날라리’의 부정적 의미가 아닌 주제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는 어린이·청소년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그 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8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아트날라리는 오는 20일 토요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앞마당(아시아문화커뮤니티공원 주차장 일대)에서 60여개 단체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공연, 전시,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60여개 교육프로그램이 참여자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아트날라리는 좋은 축제가 되기 위해 그 의미를 되새겨 준비 중에 있다.

올해 문화예술교육축제를 통해 나를 찾고, 가족의 소중함과, 광주시민으로써 공동체 삶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 가을 가족소풍을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 적벽·만연사·영벽정...화순의 역사적 공간 노래하다

화순 출신 임미리 시인 신작 파내

“생의 한 점, 한천(寒泉)에 찍고 다람쥐처럼 운송하게 살고 있다. 한천이란 지명의 의미 시원한 샘물이라고 한다. 무더운 여름 참새가 앉아 시원한 물 한 모금 입안에 머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인다. 내 시 한 편도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생명수 같았으면 참으로 좋겠다고 생각한다.”

화순 출신 임미리 시인이 신작 시집 ‘그대도 내겐 바람이다’(푸른 사상)를 펴냈다. 이번 시집이 눈길을 끄는 것은 화순의 역사적인 공간과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소담한 공간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적벽, 만연사, 영벽정, 동헌길 등 알려진 장소들의 소재로 삼은 작품이 많다.

이은봉 시인의 표현대로 “거개가 그의 거주지인 화순에서의 체험과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며 “이들 시는 특히 화순이라는 말처럼 차분하고 집적하면서도 부드럽고 쓸쓸한 어조, 곧화하면서 순한 어조를 느낄 수 있어 좋다”고 평한다.

“나무 들레의 흠을 동그라미 그리듯 파낸다./ 삼을 들어 동그라미 속으로 퇴비를 넣는다./ 파낸 흠을 덮어 정성껏



다듬고 마무리한다./ 소소리바람 속속 해집고 지나가더니/ 명지바람 먼 산을 넘나들어/ 오늘은 파산한 햇살을 불러들인다. (중략)/ 하찮은 것들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무표정한 듯 코믹한 군위병처럼/ 이 봄, 아버지의 나라를 지키고 있다.”

시 ‘하찮은 것들이’에는 남도의 들녘이 이미지화돼 있다. 작품에서 남도는 화순이라는 지명을 확대한 공간으로 다가온다. 화자는 ‘하찮은 것들’ 속에서 관계의 소중함을 성찰한다.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화자 자신을 돌아보는 기제로도 작용한다.

신덕룡 시인은 해설에서 “더불어 사는 삶 속에 진정한 나와 나의 자유가 깃들여 있다”고 평한다.

한편 임 시인은 광주대 문장과 박사과정에서 졸업했으며 2008년 ‘열린시학’, ‘현대수필’로 작품 활동을 시작해 시집 ‘물고기자리’, ‘엄마의 재봉틀’을 펴냈다. 현재 화순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공연 12일 농성동 광주예총회관



소프라노 송미나

한국가곡을 시민들과 함께 부르고 배우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가 114번째 공연을 오는 12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예총회관 방울소리공연장에서 연다. ‘나의 애창가곡 가을 음악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는 10월의 애창가곡을 정해 참가자와 함께 부른다. 이날 배울 노래는 김효근의 시노래 ‘가을의 노래’다.

이외 회원 13명이 저마다 애창가곡을 연주하는 시간을 갖는다. 매초 소프라노 박원자의 ‘그리움도 행복이여라’, 바리톤 최혜훈 ‘산노을’, 바리톤 윤황종의 ‘마중’ 등으로 무대를 채운다. 고광덕, 이현경, 문화영, 김광자씨로 구성된 소리빛 중창단은 정태준의 ‘추심’과 이수인의 ‘사랑의 노래’로 화음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를 찾는 손님은 소프라노 송미나. 독일가곡 전문연주단체 ‘캄머무지칸트’ 대표를 맡고 있는 송씨는 설도의 시예 곡을 불인 ‘동심초’와 윤이상의 ‘고풍의상’을 무대에 올린다. 문의 010-2694-459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10월호

9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문화재는 살아있다” 堂修講

- 문화재 체험, 문화재 여행 프로그램 인기
- 목포 문화재 여행 현장
- 문화재 아름다움 담아내는 문화재사진연구회

### 2018 광주비엔날레 화보

#### 시진으로 만나는 광주비엔날레 화제작들

### 노중훈의 꿈의 여행②

발칸반도의 주목할 만한 시선 코스보

해외문화 현장②  
들관에 조각처럼 들어앉은 인젤 홈브로이히미술관

문화 공간  
예술을 키우고 나눠온 휴양갤러리의 5년

문학 화제  
책의 해 이벤트 책으로 떠난 아시아 여행

### 예향 초대석

#### ‘국악계 싸이’ 소리꾼 남상일

“제대로 맛보면 누구나 국악에 빠져요”

문학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⑨  
사천의 바다가 품고 기른 시인 박재삼문학관

지역의 문화행사  
깊어가는 가을의 즐거움  
10월 광주·전남·전북축제

화가 한희원의 문화 기행-하  
크림반도, 검은 바다에 숨은 보석  
이방의 화가는 가슴이 뛰네

전시리뷰  
2018국제여성미술제-역사와 기억

정운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⑩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술로 인간을 탐색한 르네상스의 두 천재

트렌드 따라잡기⑩  
알고 싶지도 않은 정보에서 탈출  
NO! TMI(Too Much Information)

공연 화제  
김원중의 달거리  
100번째 무대

예향이 만난 이사람  
퓨처스리그 평정하고  
KIA 복귀하는 투수 박준표

시련제 소리 지렛 향기  
그윽함 그곳, 그정

양떼, 공룡과 만나는 동화  
은빛 출렁이는 가을